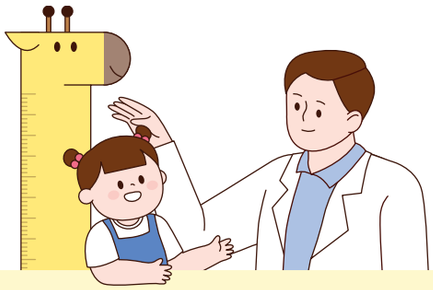
의료진 소개

소아청소년과
임정우 과장



진료분야

- 소아내분비(저신장, 갑상선 질환, 비만)
- 소아 면역질환(류마티스)
- 가와사끼병
- 호흡기질환

약력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강사 전임의(전)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정회원(현)
-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총무이사(현)
-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현)
- 대한류마티스학회 정회원(현)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성장호르몬 주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1. 저신장(하위 3% 이하)
2.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 확진
3.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경우
   (위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4. 터너증후군, 프래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 등
   성장이 지연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5. 임신 40주에 출생한 신생아 중 부당 경량아

[관련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8호, 2022.12.1. 시행)

소아청소년과 외래 042-220-9540

진료예약 및 문의 1577-0888

모바일 진료예약
www.cmcdj.or.kr/m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인터넷 진료예약
www.cmcdj.or.kr

오시는 길

내 위치에서 '대전성모병원'까지
맵을 이용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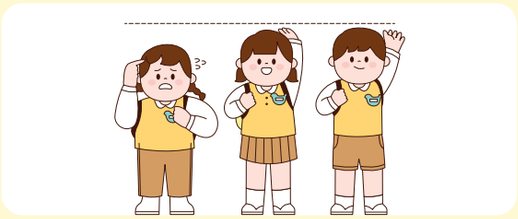
Q&A

또래보다 작은 저신장증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Q1.
저신장증은 무엇인가요.

저신장 즉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같은 연령 및 성별의 아이들 100명을 세워 놓았을 때 그 중에서 3번째 아래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Q2.
저신장증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장판 측정과 철분과 같은 기본 영양소, 성장호르몬, 갑상선호르몬, 성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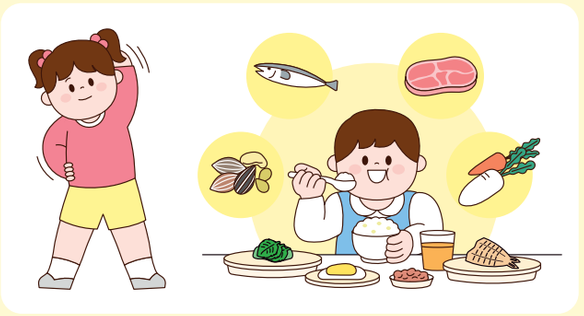
Q3.
어떠한 경우에 저신장증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3세 이후 같은 또래의 평균 키보다 10cm 이상 작은 경우, 매년 키 크는 속도가 4cm 이하인 경우, 어느 한쪽 부모라도 키가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 반에서 키 순서대로 첫 번째에서 3번째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Q4.
저신장증의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저신장의 치료는 크게 운동, 식이, 성장호르몬 주사로 나뉩니다. 먼저 운동은 스트레칭 체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기계체조, 역도 등과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성장기 아동들은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의 요구량이 오히려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5가지 기초 식품군들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성장호르몬치료의 적기는 언제인가요.

치료 시기는 성장판 융합이 오는 사춘기 변화가 나타나기 전이며, 보통 남아는 11~12세, 여아의 경우는 1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Q6.
저신장증은 아니지만, 키성장을 목적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해도 되나요.

성장판으로 측정된 최종 예상키가 평균 이하일 경우에 치료할 수 있지만, 현재 성장호르몬 치료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인 가족성저신장인 경우에서 일부에서는 최종 성인신장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아이들은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Q7.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데, 성장호르몬치료를 하면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사 부위 붓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혈당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Q8.
성장호르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 있다면요.

스트레칭, 런닝과 같은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소의 식단, 충분한 수면이 병행돼야 합니다.